

제83회 총회

보고서

증제 5호증

● 일 시 ●

1998년 9월 22일(14:00) ~ 25일

● 장 소 ●

왕성교회당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02)888-481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별지 2)

KJV만이 유일한 성경이라 주장하는

말씀보존학회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단조사연구위원회

- 목 차 -

I. 말씀보존학회 왜 문제인가?

II. 말씀보존학회의 정체

1. 성경침례교회 이송오 목사가 이끄는 단체
2. 대표인 이송오 목사는 누구인가?
3. 그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가?
4. 말씀보존학회(이송오 목사)의 주장은 무엇인가?
5. 이송오 목사의 글을 통해 본 그의 신학적 사고 성향

III. 말씀보존학회 성경관의 문제점 연구

1. <King James>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2. TR(수용원문, Textus Receptus)에 대한 바른 이해
3. 한글 개역성경이 말씀을 삭제하고 빼먹었다는 말씀보존학회의 주장에 대해
4. 이송오 목사가 혼자 13년간 번역했다는 한글킹제임스성경이 무오한 최종권위라는 주장에 대해

IV. 경계해야 할 말씀보존학회의 위험한 주장들

1. 재창조설(再創造說, 증조론, The Gap Theory) 주장
2. 칼빈주의를 이단으로 보는 견해
3. 보편적 교회를 부정하며 성경침례교회만이 성경의 교리를 실천하는 교회라는 주장
4.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주장
5.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치 않는다 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주장
6. 이 땅에는 성경을 가르칠 신학교도 교수도 없다는 주장

V. 정리하는 말

I. 말씀보존학회 왜 문제인가?

우리 교단을 포함하여 한국의 건전한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적 교단들은 모두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고(딤후3:16)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훼손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하며, 성경을 불신시키려는 모든 책략도 거부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태이며 보루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단이 주도하는 많은 이단운동들은 성경의 절대성에 도전하며, 또한 복음적 해석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보존학회라는 단체에서 주장하는 주장의 내용은 이제까지 성경을 대적했던 운동의 방향과 질을 달리하며 한국교회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알지못하는 사이 문제성을 가지고 교계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 말씀보존학회가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다른 것들과 차별화되고 독특성을 가지는 이유는,

- ① 단순한 성경의 해석 차원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대한 이견(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은 사탄이 변개한 가짜 성경이라느니 한국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니 하는 등등)을 주장한다는 점
- ② 그동안 성도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따르던 성경을 불신하게 한다는 점
- ③ 그들의 주장이 사본학과 원문비평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 접촉되어 터무니 없고 무지한 논리지만 대단히 학구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려성이 크고, 이에 따라 개역성경을 사용하고 다른 번역본을 무시하지 않는 정상적인 성경관이 파괴되어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점
- ④ 무엇보다 비성경적인 성경관과 학문적 접근으로 흑백논리를 증폭시키고 기존의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점.

이러한 것이 말씀보존학회가 끼칠 수 있는 오류며 성경적인 교회들이 우려하는 포괄적 내용이다.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해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교단과 한국교회가 성경적이지 못한 사설에 미혹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분석의 중요성이 있다.

II. 말씀보존학회의 정체

1. 성경침례교회 이송오 목사가 이끄는 단체

말씀보존학회는 성경침례교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단체다. 성경침례교회는 기존의 성서침례교회와는 또다른 교단이 없는 독립교회로 담임목사가 이송오이다. 서울

헷בל 트리니티신학대학원의 장두만 교수는 이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요약했다.

- 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특별한 섭리로 변개되지 않게 보존하셨다.
- ② TR(Textus Receptus)만이 그렇게 보존된 헬라어 사본이다.
- ③ 비잔틴 계열의 사본을 중시한다.
- ④ TR에서 번역된 KJV(KJV외에서 TR에서 번역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 ⑤ 한글 개역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삭제했다.
- ⑥ KJV은 영감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마디로 이송오 목사는 KJV을 쓰지 않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며 KJV을 가르치지 않는 성경공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KJV이 원문으로 채택한 TR이라는 사본만이 하나님이 섭리로 이 땅에 남겨주신 유일한 성경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복음주의적인 교회와 또 신학자들과 어긋나간 것이다. TR을 여러 사본들 중의 하나로 보지 않고 유일한 사본으로 삼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참조한 다른 계열의 사본은 원천적으로 사탄이 변개한 것이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번역한 한글개역성경, 그들이 그토록 저주하는 영어의 NIV, RSV등은 성경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에
게재된 개역성경 비판 삽화



핵심적인 주장인 이것인데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노력을 들여서 도표를 만들고 수많은 이름과 연대와 자료를 그들의 상상력과 더하여 책들과 글들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조 도표- 말씀보존학회가 주장하는 성경의 구분)

보존된 성경(시 12:6-7)	변개된 성경(고후 2:17)
<p>하나님께서 기록 ↓ 최초의 원문 히브리 맛소라 원문 코이네 헬라어 표준원문 ↓ 구 시리아 역본(The Old Syriac, A.D.120) ↓ 구 라틴 역본(Old Latin, A.D.150) ↓ 이태리 교회에서 사용한 성경(A.D.157-180) ↓ 폴 교회에서 사용한 성경(A.D.177-200) ↓ 켈트 교회에서 사용한 성경(A.D.300) ↓ 발칸과 독일 지역에서 사용한 성(A.D.400) ↓ 비잔틴 제국 기간 동안 희랍 교회들에서 사용한 성경(A.D.312-1453) ↓ 헬라어 표준원문(Textus Receptus) 에라스무스 성경(1522), 콜리네우스 성경(1534) 스테파누스 성경(1550), 베자 성경(1604), 엘지버 성경(1633) ↓ 틴데일 성경(1525) ↓ 루터 성경(1534) ↓ 킹 제임스 성경(1611) ↓ 새성경 사복음서(1988) 새성경 1판(신약, 1990) 새성경 2판(신약, 1990) 새성경 3판(한영판 신약, 1991) 새성경 4판(신약, 1992) ↓ 한글 킹 제임스 성경(신구약 합본, 1994) 한영대역 한글 킹 제임스 성경(1995)</p>	<p>사탄이 변개 ↓ 바빌론, 그리스, 로마의 신비종교 ↓ 오리겐(A.D. 184-254)의 헥사플라 제5란-70인역(LXX) ↓ 유세비우스의 50권의 복사본 바티칸 사본, 시내사본 : "외경"포함 ↓ 제롬의 라틴 별케이트(A.D.415) ↓ 예수회의 립즈 듀웨이 성경(1582) ↓ 여러 비평가들이 편집한 헬라어 성경들 그리스바흐(1812), 라흐만(1851), 트레겔레스(1872), 티헨돌프(1874) ↓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헬라어 성경(1881) ↓ 영어 개역본(R.V. 1884) ↓ 네슬(Nestle)판 헬라어 성경(1898-1979) ↓ 연합성서공회의 헬라어 성경1, 2, 3판 (1966-1975) ↓ 개역표준역본(RSV, 1952), 여호와와 증인-신세계역본(NWT, 1957) 새미국표준역본(NASV, 1959), 새개역표준역본(NRSV, 1970) 새국제표준역본(NIV, 1978), 뉴킹제임스역본(NKJV, 1982) ↓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1956)-첨가와 삭제 가 임의로 이루어짐 ↓ 공동번역 성서(1977), 현대인의 성경(1986) 현대어 성경(1991), 표준새번역(1993)</p>

만약, 말씀보존학회와 이송오 목사가 KJV은 많은 면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되는 중요한 번역이라든가, 우리가 적극 참조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물론 현대에 발달한 사본학과 원문비평의 결과 대다수의 신학자가 KJV이 불명확하고 오역과 오류가 많은 성경이라 증언함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KJV을 선호하는 이 목사를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번역본 중의 하나로 과거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정확하고 더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JV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 그것을 폐기시킨 것은 아니다.

문제는 “오직 킹제임스”, “오직 TR”을 외치며 이외의 성경은 사탄이 변개한 작품이라는 그의 독단성과 아집과 공격성에 있다.

이송오 목사는 더 나아가 자신이 혼자 13년 동안 영어 KJV에서 한글로 옮겼다는 한글판 킹제임스 성경을 권위역이나 최종 권위의 유일한 성경이니 하면서 개인적 번역본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유일한 성경으로 주장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판단할 수 있다.

럭크만과 이송오 목사는 우리 시대의 배교(背教)를 킹 제임스 성경을 쓰지 않는 데서 이유를 찾고 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이 배교의 모습은 킹 제임스 성경을 거부하고 다른 많은 변개된 성경들을 사용한 데서부터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시대에 가장 부패한 역본인 「새국제역본」(NIV)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럭크만, 배교의 결정판 NIV, p.9)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온지 1200여 년이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 신약교회가 세워진 적은 없었다. 물론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조명해보면 그 해답을 간단히 얻을 수 있다.

첫째, 이 나라는 그동안 바른 성경을 가져보지 못했다.”

(이송오 지음,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서문 중)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성경의 영감을 말하는 그 위선자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하겠는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원문이 어떻게, 성경의 보존이 어떻게 되고, 정확무오함이 어떻게, 교회성장은 어떻게 되고, 영적 대각성이 어떻게, 부흥해야 하고, 개혁해야 하며,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설교하는 그들의 위선을 당신은 어떻게 신뢰하겠는가?”(위의 책, p.74)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는 진리의 조명을 받을 수가 없다. 필자는 개역성경을 백독했다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전해 듣기도 했다. 하루는 잠실에 있는 어느 교회의 목사가 자랑스레 성경을 백 독했다고 말하기에 나는 즉시, 읽고 무엇을 남겼느냐고 물었다.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위의 책 p.211)

이 세계 전체에 새벽예배를 드리는 곳은 없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안해왔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다.

▲방언이나 은사에 대해서는 어떤가?

비성경적이다. 특히 방언은 악령이나 하는 것이다.(교회와 신앙, 인터뷰 중)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제도교회의 예배의식에 들어 온 것은 순전히 카톨릭 교회에서 모방해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약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다. 초대 교회에서부터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런 것은 헛된 것이니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p.95)

“세 가지 절기, 즉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대략 살펴 보았다. 이 세 가지 모두 성경적 근거가 없다. 이 절기들이 그리스도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런 관계도 없다.”(위의 책, p.111)

이상 몇가지를 살펴 볼 때 이송오 목사는 성경의 정신 보다는 성경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속에서 문자주의에 얽매어 있으며 때로는 유약적이라 할 만큼 이상한 성경 추론을 하는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

III. 말씀보존학회 성경관의 문제점 연구

킹 제임스 성경과 그 원문인 TR(Textus Receptus)만이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이라는 주장

1. <King James>성경의 바른 이해

1611년 번역된 킹 제임스(King James)성경은 전혀 그 당시로도 전혀 새로운 성경이 아니라 이전의 번역판들에 대한 개정작업이었으며 제임스 왕이 권위를 인정한 것이었다.

“이른바 흥정역(欽定譯) “Authorized Version”이라는 것도 사실상 그 자체는 그 이전의 번역판들을 개정한 것으로 1611년 제임스 왕이 권위를 인정한 것으로 Erasmus의 그리스어 텍스트를 기초로 한 것이다. 에라스무스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겨우 6개의 후기의 빈약한 그리스어 사본 뿐이었으므로 많이 애용되어 온 흥정역에 있는 자료는 3세기 이상이나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의 성경으로서는 매우 불명확한 것이다. 사실상 Erasmus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의 사본도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만일 Erasmus가 그것을(시내산 사본)을 볼 수 있었다면 지금의 흥

000042

정역 성경은 의심할 여지없이 좀더 정확한 텍스트가 되었을 것이다.”
(George E. Ladd, The New Testament and Criticism)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약학자 조지 래드(George Ladd)의 말이다. 조지 래드는 성경 헬라이어와 교부 헬라이어로써 박사학위를 받은 분으로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신약학자이다.

헛불 트리니티신학대학원의 장두만 교수의 글을 인용해 본다.

“KJV은 1611년에 번역된 성경이다. 언어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그 의미가 변화된다. 약 400년이 경과하면서 단어의 의미가 바뀐 경우도 많이 있고, 1611년 이후에 성서 고고학은 물론 다른 학문도 급격히 발달되어 성경의 배경이나 단어의 의미가 분명히 밝혀진 경우도 많이 있다. 사본의 수도 그대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 TR의 원형인 에라스무스의 헬라이어 성경이 겨우 5권의 사본을 사용해서 편집된 것임에 비해 지금 우리는 약5,400여권의 헬라이어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해 버리고 킹 제임스 유일론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망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볼 때 KJV은 좋은 번역이고 믿을 만한 번역이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번역판이기 때문에 오류가 상당히 많다.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말할 때 그것은 원본에만 국한시키지 결코 사본이나 번역판에까지 확대해서 적용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사본과 번역판은 다소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장두만, 목회와 신학, 98년 7월호)

R. C. Sproul 박사가「Knowing Scripture」에서 KJV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King James〉성경처럼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면서 널리 사용되었던 성경 번역의 경우 그 영예가 위협받을라치면 그에 대한 저항이 붓물처럼 터져나오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들은 킹 제임스 성경을 없애는 것은 마귀의 소행에 다름아니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또다른 사람들은 〈King James〉성경이 문자적으로 영감을 받은 번역인 것처럼 행동해 왔다.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King James〉성경은 그 오랜 수명 때문에 문학이나 시나 찬송가에서 그 글귀가 울려 퍼질 때마다 그것은 더없이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 번역의 아름다움을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King James〉성경과 관련하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고 잊을 수 없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King James〉성경이 대부분의 현대 번역보다 성경의 원뜻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King James〉성경의 원문이었던 희랍어 텍스트(Textus Receptus)는 오늘날의 새로운 희랍어

텍스트들보다 분명히 좋지 못하다. <King James>성경에서 발견되는 많은 텍스트상의 오류는 최근의 번역들에서는 거의 제거되었다. 16세기 이후 발견된 사본들은 원본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큰 도움을 주었다.....아름다운 번역으로 말하자면 <King James> 성경을 따라올 성경이 없다. 그러나 성경 번역의 정확성과 흠없음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King James>성경을 넘어서야 한다."

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조언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다. 현재 서구 세계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교묘히 짜고 <King James>성경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는 러크만과 이송오 목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무지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2. TR(수용원문, Textus Receptus)에 대한 바른 이해

말씀보존학회는 <King James>성경의 원문인 TR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일하게 보존된 참된 말씀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글판 킹 제임스 성경의 서문에 이송오 목사가 쓴 부분을 인용해 본다.

"한편 신약성경의 원문은 사도 시대 이후 주로 소아시아의 지역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산재되어 있었고, 이 사본들이 신실한 성도들의 손에 의해 믿는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안티옥에서 발칸 반도를 거쳐 알프스를 넘어 유럽으로 옮겨졌고, 독일에서 영국으로 들어갔다. 이 원문은 악한 세력들의 성경 변경 시도와 갖은 박해 속에서도 한번도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오으로써 정통원문(Traditional Text)이란 명칭이 붙게 되었다."

아래의 글은 한글킹제임스성경의 홍보 팜플렛의 내용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최초의 원본에서 수많은 현사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5,366개의 필사본들이 현존하는데, 이 가운데 85%의 필사본들이 "다수필사본"인 헬라어 <표준원문, TR>이며, 나머지 15%가 소수필사본인 알렉산드리아 원문이다.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원문이 소수인 이유는 사람들이 틀린 원문을 필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문에 따라 성경을 판단할 때, 영어 <킹제임스성경>과 <한글킹제임스성경>은 <표준원문> 계열의 성경이고, <개역한글판성경>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이다." (홍보 팜플렛 4~5쪽)

정말 그런가? 장두만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TR의 기원은 중세의 인문주의자요 신학자인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9-1536)에서 시작된다. 그 당시까지 시중 판매용으로 제작된 헬라어 성경은 전무하였다. 그래서 프로벤이라는 인쇄업자의 종용으로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 편집작업을 하기로 하고,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과 스위스 바젤에서 헬라어 사본을 수집하였

지만, 실망스럽게도 12세기경의 사본 5권 밖에는 입수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입수한 사본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포함하고 있는 사본은 단 한 권뿐이었고 그것도 마지막 6절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부득이 라틴어 벌게이트(Vulgate)성경을 번역하여 그 부분을 채워 헬라어 성경을 시중에 내놓았다. 1515년 10월 2일에 시작된 인쇄가 1516년 3월 1일에 완성되었다. 1,000페이지 가량 되는 방대한 작업을 너무 급히 인쇄했기 때문에 오자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헬라어 성경 출판은 대성공이었다. 그것은 4판에 69쇄가 발행되었다. 그의 성경은 그후에도 스테파누스(Stephanus), 베자(Beza), 엘제비르(Elzevir)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엘제비르는 그의 2판(1633)서문에서 에라스무스 헬라어 성경의 인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본문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TR(Textus Receptus = Received Text)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고, KJV의 신약 부분은 바로 TR에서 번역된 것이다.(목회와 신학 98년 6월호)

조지 래드의 말을 들어본다.

“우리는 3세기 반 동안이나 수 백만의 신도들이 사용하고 사랑하여 왔던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는 1611년의 <King James Version>이었으며 이것은 최초로 인쇄된 신약성경, Textus Receptus에 기초를 둔 것이고 Textus Receptus는 후기 사본의 대다수로서 이루어진 시리아(Byzantine) 계보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상기해 두자. 좀더 최근의 학문 연구로 만들어진 텍스트에 비교해 볼 때 이 Textus Receptus는 빈약한 텍스트일뿐 아니라 판본의 오류가 수 천개나 여기저기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애지중지 하여 온 흠정역을 만드는데 기본이 된 것이다. 이것은 신앙이나 신학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하고 객관적인 사실인 것이다.(중략)

Textus Receptus와 KJV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영감적인 이 책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3세기 반 동안이나 흠정역(欽定譯)은 그 텍스트상에 수 천개의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백만의 신도들에게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왔다. 그 위엄성, 아름다움, 친숙함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에도 다른 번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며 흠정역의 영어 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인 양 읽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진 흠정역의 기초가 되었던, 그 시대에 뒤떨어진 텍스트의 결점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다수 번역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는 말씀보존학회의 주장은 참된가?

장두만 교수의 글을 본다.

“사본의 숫자로 볼 때에는 비잔틴 계열에 속하는 사본이 가장 많다. 비잔틴 계열의

사본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사본의 '정상적인 전승'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보존' 때문에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 많고, 따라서 이 계열의 사본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전승'이란 올바른 사본이 오류가 있는 사본보다 많이 제작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증명할 수 없는 하나의 가정에 불과한 것이다. '섭리에 의한 보존'이란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그 사본도 보존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본의 무오성을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그러면 왜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 많이 제작되었는가?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한다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릴 것으로 생각된다. 신약성경이 기록된 후 얼마 후 부터 로마제국 내에서는 라틴어가 헬라어 대신에 통용되었기 때문에 헬라어 사본을 제작할 필요가 적어졌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헬라어 사본이 많이 제작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사본으로는 라틴어 역본이 많다. 또다른 이유는 이슬람교가 팔레스타인은 물론 북아프리카, 스페인 및 남프랑스에까지 영향을 미쳤지만, 콘스탄티노플(비잔티움) 지역은 15세기까지 이슬람 영향권밖에 있으면서 계속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헬라어 사본 제작이 활발했던 것이다."

3. 한글 개역성경이 말씀을 삭제하고 빼먹었다는 말씀보존학회의 주장에 대하여

말씀보존학회에서는 자신들이 번역한 한글킹제임스성경을 홍보하면서 자신들의 성경만이 유일하게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는 참된 성경이라 주장하고 있다.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삭제가 없는 유일한 성경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는 곧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인용한 조지 래드의 말처럼 TR 자체가 부족한 원문이고 판본 자체에 수 천개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처럼 더 신빙성있고 정확한 전기 시대의 사본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족한 번역들은 교정될 수 있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개역성경에 있는 "없음"이라는 부분은 말씀보존학회의 주장처럼 원래 있었는데 삭제한 것이 아니라 성경 필사자들이 후기에 첨가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원문비평학적으로 제외시킨 것이다.

한 예를 살펴본다.

■ 요한일서 5:6~7절

- ▶ 한글 개역성경 :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 ▶ 한글 킹 제임스 성경(말씀보존학회 발행) :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나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영어 KJV에는 이 부분을 이탤릭체로 적어 놓았다, 한글 개역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음.)

말씀보존학회에서는 이 부분의 차이점을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다.

“개역성경은 삼위일체를 완전하게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을 통째로 제거해 버렸다. 뿐만 아니라 6절의 끝부분을 7절에 놓아 7절이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홍보 팜플렛)

말씀보존학회는 결국 사탄의 세력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위해 너무도 삼위일체를 증명하기 멋진 구절을 의도적으로 제거해 버렸다는 의미이다. 정말 그런가?
R.C. Sproul 박사의 말을 들어본다.

“나는 성경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전하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또한 위에 인용한 구절이 참된 말씀임을 믿는다. 하지만 나는 요한이 이 구절을 직접 쓰지 않았으며 또한 이 구절은 요한 1서의 텍스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확신한다. 왜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희랍어 사본들이 압도적으로 이 구절에 대한 반대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최초의 텍스트들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성경 텍스트에 우연히 첨가된 필사자의 주석을 지적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조지 래드의 말을 들어보자.

“성부, 진리, 성령인데 이것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요일5:7, 8 AV.) 이것에 관한 증언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Erasmus 자신이 비난을 받게 되었다. Erasmus 는 자신을 변론하여 말하기를 Latin Vulgate에 있는 이 말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어 사본에는 아무데도 없었으며 단 한 개의 그리스어 사본에서만 발견된다 해도 그의 후판에 그것을 집어 넣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같은 사본이 나왔을 때 Erasmus 는 그의 약속을 이행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흠정역에 이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이 그리스어 사본은 옥스퍼드에 있는 한 수도승이 Latin Vulgate에서 그 말을 뽑아 다 쓴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수 천개의 그리스어 사본에 이 말이 있는 것은 단지 셋 뿐이며 그 연대는 12세기부터 13세기, 그리고 16세기이다. Erasmus의 신약의 다른 열 두 개의 구절에는 그리스어 사본의 증언의 뒷받침이 없는 부분이 있다.”

장두만 교수

“사본상의 증거가 분명한데도 의도적으로 그 구절을 빼먹었다면 어떤 비난이라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NASB나 NIV번역자들이 KJV에 있는 일부 구절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사본상의 증거로 볼 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필사자들이 나중에 포함시켰다는 증거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000047

의 말씀에 포함시켰다면 포함시킨 사람들이 더 큰 비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목회와 신학 98. 6)

이 외에도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원문비평학적으로 논할 구절이 많지만 원리는 같기에 지면상 한 예로 그치고자 한다. 개역 성경이 말씀을 삭제했다는 대담한 말씀보존 학회의 주장은 무모하고 무지한 주장에 불과하다. 오류가 있을 수 있는 한 인간이 편집한 사본을 마치 원본인 것 마냥 취급하고 또 그것을 한 번 더 번역한 KJV을 우상시 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4. 이송오 목사 혼자 13년간 번역했다는 한글킹제임스성경이 무오한 최종권위라는 주장에 대해

(교회와 신앙 95.2월호에서 이송오 목사의 인터뷰 내용)

- ▶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누가, 얼마동안 번역을 한 것인가?
“나 혼자했다. 13년 걸렸다.”
- ▶ 그렇다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100%로 번역한 것인가?
“그렇다.”
- ▶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는 말이 있다던데?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려는 말이다.”
- ▶ 한글 개역성경을 사용해도 원문과 교리적으로 큰 차이점은 없다는 의견도 많이 있던데.
“누가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런 거지같은 00의 말을 듣는가?”
- ▶ 만약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수정할 용의가 있는가?
“물론이다.”
- ▶ 그 의미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뜻인가. 아니면 고칠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인가?
“완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은 있다. 유죄가 판명될 때까지 무죄라는 말이 있다. 성경에 쓰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보다 훨씬 좋은 성경을 번역해 냈다고 하자. 그 때까지는 이것이 최종권위이다.”

이송오 목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발간 서문에 번역의 표준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구약의 번역은 처음부터 히브리어 맛소라 원문을 영어로 가장 잘 전수한 킹 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하였고, 신약은 처음에 희랍어 표준원문에서 직역했으며 제 3판을 킹 제임스 성경과 대조하면서부터 킹 제임스 성경에 철저하게 어휘를 맞추었고, 구약의 어휘는 히브리 맛소라 원문과 비교, 투영시킴으로써 히브리어, 희랍어,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데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언어의 간격을 좁히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굳이 번역이 원칙이라고 내세워 틀을 먼저 짜놓고 끼워 넣는 식의 번역을 탈피하

였고, 표현기법에 있어서 이전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선택하였다. <개역 한글판>성경으로 익숙해져 버린 문화적 및 전통적 통념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성구사전(Young's Concordance)의 어휘만을 획일적으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본 성경 어휘로 새로운 성구 사전을 만든다는 자세를 취하여 어휘의 통일성과 더불어 의미의 전달에도 중점을 두었다."(한글 킹제임스 성경 발간 서문)

위의 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자신의 표현대로 '번역의 기준도 없이' 이것 저것 뒤섞어서 자신의 판단대로 노력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영어 킹제임스에서 100% 번역했다는 그의 말을 이내 자신의 말로 거짓임이 판명된 것이다.

그가 혼자 원칙없이 편의주의적으로 번역한 이 성경이 어떤 부분이 오류인지는 나열한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욕기 29:3이 원래 "촛불"(candle)인데 단어를 개역한글판성경(NASV)에서는 "등불"(lamp)로 바꾸어 놓았으니 변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준이다. 고고학적으로 유대민족이 촛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등불로 더 정확히 번역해 놓은 것을 변개라고 말하는 정도니 다른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이송오 목사는 영어 킹제임스가 이상한 듯한 부분은 자기 나름대로 고치고 영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역한 부분도 많다.

결론적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도 아니고 헬라어 원문에서의 새로운 번역도 아니다. 그것은 번역으로서는 별 가치가 없는 중역(重譯)에 불과한 것이다. 「말씀보존학회」 사람들이 번역을 하려면 구약은 MT(Masoretic Text)에서 직접 번역하고, 신약은 TR(Textus Receptus)에서 번역했어야 할 것이다."(장두만 교수)

▲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보았던 원본을 가지고 한국사람이 한글로 직접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옮겨야 한다. 무슨 수단을 쓰든지 수용언어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수용언어로 되어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도 히브리어 학자나 헬라어 학자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은 이제 우리 성경에서 틀린 것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한다. 그러면 나는 그 단어가 왜 여기에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다. 이 나라에 학자들이 있으면 질문을 하라는 것이다."(잡지, 교회와 신앙 ,95,2)

결론적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송오 목사가 개인적인 의욕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사용해 편집해 만든 조잡한 번역판인 '이송오 버전'(Version)에 불과하다. 이 성경을 유일하게 영감된 성경으로, 고칠 것이 전혀 없는 성경으로 말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100년 전통의 권위있는 성서공회를 무참히 깎아내리며 자신의 번역만이 참 성경이라고 하는 그의 주장은 '비성경적'이라 말해도 과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교회인양 매도한 것이다.

상식적인 사람 누구도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을 것인데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니 얼마나 생각이 왜곡되어 있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면관계상 이송오 목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많은 부분을 생략하지만, 이송오 목사의 성경을 보는 시각이 대개 이러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개역성경을 사단이 교묘히 변개시켰기 때문에 본인이 그 교묘히 변개시킨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는 사명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이해를 파괴하고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괴변을 늘어놓는 특징이 있다.

6. 이 땅에는 성경을 가르칠 신학교도 교수도 없다는 주장

글 초두에서 살펴본 대로 이송오 목사는 세계를 통틀어 성경대로 가르치는 신학교는 미국의 펜사콜라 신학교(학장: 피터 렉크만)과 한국의 펜사콜라성경신학원 두 곳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렉크만에 대해서 “성경에 어떤 단어가 왜 그곳에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렉크만 맹신을 드러냈다.

▶ 국내에 있는 기존의 신학교 중 추천한다면 어디인가?

- 모른다. 기존의 신학교에는 성경을 가르칠 사람도 없고 가르칠 성경도 없다.

(교회와 신앙, 95. 2)

“또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킹제임스성경>을 배격하고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프린스턴, 에모리, 웨스트민스터, 플러등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채택함으로써,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는 상이한 신앙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펜사콜라 신학교 홍보 팜플렛에서)

V. 정리하는 말

말씀보존학회와 그 대표자인 이송오 목사의 주장은 살펴보면 살필수록 균형을 상실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상적으로는 미국 펜사콜라신학교의 피터 렉크만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고, 해석학적으로는 세대주의적 방법과 관점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전천년설을 주장하면서 헬라이어 사본 중의 하나인 TR만이 유일한 성경이고 또 그것을 번역한 KJV, 또한 자신이 이것을 보고 13년간 번역했다는 한글 킹제임스성경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의 주장을 요약할 수 있다.

이 글의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이송오 목사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그릇된 학문으로 교묘히 포장된 사이비적인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아닌 성경 자체에 대한 부정과 비판 때문

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이 마치 구원을 알려주지 못하는, 사탄이 변개하여 품에 안겨준 성경 이라 말하며, 숨겨져 있는, 섭리로 보존된 성경이 “따로 있는 듯” 주장할 때, 평신도들 뿐 아니라 원문비평학에 익숙치 않은 목회자들까지도 미혹될 수 있다는 점이 대단히 위험하다. 특별히 비판의식이 높고 아직 성숙된 성경 이해가 없는 청년층과 교회에 대한 반항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의 가르침이 전해질 때 미혹되기 쉽다는 점에서 개교회와 목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는 성경 사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교단의 목회자들이 가져야겠다.

성경은 주님이 주신 원문으로부터 많은 양의 필사본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 인쇄술이 없었던 시대에 한 복사본에서 또 다른 복사본으로 내려오는 동안 그 텍스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오류가 스며들었다. 텍스트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때로 신학적 중요성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성경의 의미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 복사상의 오류는 사소한 차이의 것이다. 띄어쓰기 오류, 오타자, 필사자의 착오, 중간절 건너뛰 등등

“과거 두 세기에 걸쳐 사본들을 수집하고 비교하는 일을 해 온 본문 비평가들의 수고로 원문과 관련된 주요 의문들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비록 해결되지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기독교 역사나 교리의 근본적인 내용들은,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폴 바네트, 신약성경은 믿을 만한가, p.56)

“믿을 만한 텍스트를 이룩하는 것은 과학적인 학문의 작업이다. 그렇다고 이 말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인간의 모든 역사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하나님은 역사적인 인물, 사건, 과정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셨고 그의 계시적인 말씀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비평은 필요하다. 그리고 비평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역사적 차원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이 마술적으로 주어졌다면 문제는 좀더 간단하고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성경 비평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원본 비평은 묻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그것은 묻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텍스트는 어느 것인가? 얼마 만큼 정확히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신 그 말씀을 재 구성할 수 있는가?”

(조지 래드, 앞의 책, pp.94~95)

결론적으로 우리는 과거 400년 전의 사본과 번역보다 훨씬 좋고 믿을 만한 헬라이어 사본과 번역을 가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원문 비평학이 지금보다 발달되지 않았고 고고학적 연구가 미진하고 훨씬 이전의 사본이 발견되지 않았을 당시에 제작된 성경

을, 더욱 정확해진 성경보다 우위에 놓는 것으로도 모자라 KJV 外의 성경들을 모두 사탄의 작품으로, 쓰레기통으로 매도하는 말씀보존학회의 주장과 가르침은 비성경적임을 확인한다. 더더군다나 자격이 검증되지도 않은 한 개인이 개인 성향에 따라 여러 번역본을 짜맞추어 번역해 놓은 것을, 유일하게 섭리로 보존된 성경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송오씨의 표현대로 "또다른 번개된 성경"을 생산해 내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행동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개역성경을 쓰는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말씀보존학회와 이송오 목사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말씀보존학회에서 나오는 출판물에 의해 더 이상 말씀이 불신당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성도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특별히 신학을 알지 못하는 지성인과 일부 목회자들에게 말씀보존학회의 논리가 허황된 신빙성을 가지고 전파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할 때다. 믿음이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이유는 바른 성경을 못가졌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에 젊은이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한층 젊은이들의 신앙교육도 힘을 써야 한다.

자신이 번역한 한글킹제임스성경이, 완전하지만, 유죄가 판명될 때까지는 무죄라며 이상한 논리를 펴는 이송오 목사, 성경을 가지고 전혀 비성경적인 주장을 펼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말씀보존학회에 이제 한국교회와 교단이 유죄를 선언할 때가 된 것이다. - 끝 -